



세계는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 전 세계 특허분류 공통화 작업 시안 정리

지난 8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V)의 엔진시스템 등 일본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의 특허분류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특허분류(IPC)의 시안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의 80%를 차지하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IP5를 중심으로 2014년 전 세계 특허분류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주요 국가들의 특허분류를 통일화하여 일본 기업이 각국에서 효율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외에도 경쟁이 심화되는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nikkan.co.jp>

일본 특허청, 도형상표의 거절사례 정보제공

지난 8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 출원된 상표 중 도형상표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하다는 내용의 거절 이유가 통지된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 연구용 이미지 검색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검색을 도형상표 검색에도 응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특허청에 보고한 바 있고, 의견교환에서도 JPO가 도형 상표의 심사에서 어떤 것을 유사 상표로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특허청 상표과에서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9년 출원된 상표 중 특히 도형상표에 대해서 거절 이유 통지 사례를 정리하였다.

출처 <http://www.jpo.go.jp>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지난 8월 4일,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는 기업 경영에서 필요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기업이 특허를 무기로 해외시장 개척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강점인 기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경영을 내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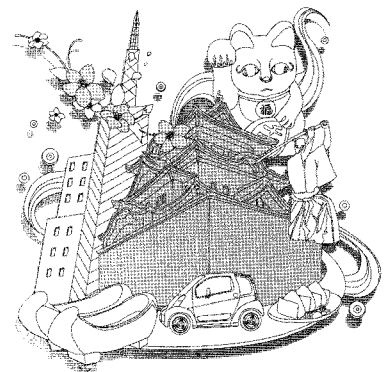
그러나 변리사 등 지식재산전문가는 특허출원 절차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진은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해 경영 현장에서 지식재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과 경영의 관점에서 경영진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용자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진단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첫 강좌는 9월~11월 중 5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mainichi.jp



미국 상원, 특허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 예정

지난 8월 2일, 미국 상원은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원의 Harry Reid 의원은 먼저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특허개혁법안의 수정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9월 6일에 표결을 통하여 동 법안을 다음 단계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Chuck Schumer 의원은 현재 미국의 부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동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백악관 대변인은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절차만 해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서명되어 발표되면 미국 특허제도는 60년 만에 큰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가장 주요한 변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이다.

출처 <http://www.nationaljournal.com>

미국 하원,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에 데이터독점권 축소를 요구하는 서한 작성

지난 8월 4일, 미국 하원 의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Henry Waxman 의원은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6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현재 미국은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해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절차는 전통적인 의약품 승인절차보다 복잡하며 12년의 데이터독점권이 주어진다.

지난 6월 진행된 TPP 제7차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데이터독점권을 1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동의하였다.

서한에서 Waxman 의원은 TPP의 지식재산권 규정 안에 포함된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7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의회가 제시한 7년의 데이터독점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12년으로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실행력이 약해질 것이 우려되며, 1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thehill.com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건수 8백만 건 돌파

지난 8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건수가 8백만 건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했다. 1911년부터 허여한 특허건수가 1백만 건이 되기까지 7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7백만 건에서 8백만 건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8백만 번째 특허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8백만 번째를 기록한 특허는 Second Sight社의 발명품으로 외부 망막변성으로 실명한 사람들을 위해 시·지각을 강화시켜주는 시각 인공 삽입물 장치에 대한 특허이다. 이러한 혁신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USPTO는 미국의 혁신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uspto.gov>



세계는 지금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한 애플의 가처분신청 인정

지난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독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측 간의 소송 20여 건 가운데 처음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정된 판결이다.

「갤럭시탭 10.1」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를 잡겠다고 내놓은 야심작이며,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영국, 독일 등 서유럽에서 대대적인 출시 이벤트를 벌이던 중이었으나, 법원의 재심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그동안은 판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미 호주에서도 애플이 특허침해소송을 내면서 「갤럭시탭 10.1」 출시 일정이 유보된 상태이다.

영국 지식재산청, 정부의 지식재산법 개정 결정 발표

지난 8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정부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UKIPO로부터 의뢰받아 Cardiff 대학 Ian Hargreaves 교수가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지난 5월에 발표한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수락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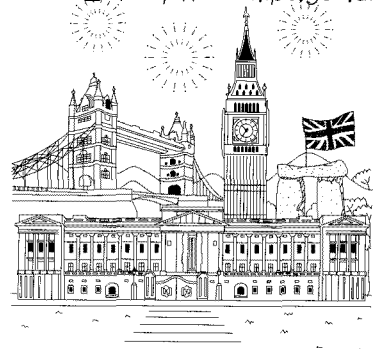
영국 정부가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식재산권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설치) 콘텐츠 관련 라이선스를 온라인에서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즉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설치함
- (개인용 단말기 관련 사적복제 허용) 합법적으로 구입한 콘텐츠를 CD나 컴퓨터 또는 iPod과 같은 휴대장치로 옮기는 것을 합법화함
-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패러디 할 수 있게 하여 영국의 생산업체와 코미디언 같은 실연자들이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실연할 수 있

도록함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으로 알려진 기술 검색 및 분석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함. 현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분야 연구자 및 과학자 등이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하는 것에 지장이 있음
- (작자 미확인 저작물의 라이선싱) 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싱 및 허락절차를 마련할 것임
- (증거 기반 미래정책 수립) 정부는 증거를 기반으로 미래정책을 수립할 것임. 정부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미 한 개의 보고서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6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http://www.ipa.gov.uk>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2011년 상반기 기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공개

지난 8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SIPO)은 2011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대비 59.1% 증가한 약 31만 건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등이 각각 45.7%, 62%, 69.7% 증가했다.

중국기업의 발명특허 출원 및 등록 순위는 다음과 같다.

출원 순위	기업명
1	중싱(中兴)
2	화웨이(华为)
3	시노펙(中石化)
4	하이양왕(海洋王)
5	텐센트(QQ)
6	쥘다(剑达)기술거래시장
7	코디(Caddy)
8	중국석유(CNPC)
9	비아디(BYD)
10	화웨이 종두안(终端分期)

등록 순위	기업명
1	중싱(中兴)
2	화웨이(华为)
3	시노펙(中石化)
4	비아디(BYD)
5	H3C(华三通信)
6	DT모바일(大唐移动)
7	SMIC(中芯国际)
8	체리 자동차(奇瑞汽车)
9	인벤텍(英业达)
10	바이오스틸(宝山钢铁)

중싱사는 2010년 2,434건의 발명특허를 등록하여 2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 1,69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화웨이는 2010년 2,776건의 발명특허를 등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 1,498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과 리순더(李顺德) 주임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발명특허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sipo.gov.cn>

중국 중앙인민정부, '중국 산업기업 브랜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공개

지난 8월 2일, 중국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개발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등이 포함된 7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 산업기업 브랜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공개하였다.

지도 의견은 2015년까지 중국기업들의 혁신능력과 브랜드 육성능력을 강화하고 각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을 제정 및 실시하게 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출처 <http://www.gov.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